

대상

정승호 \ 고윤채

Therapy House

대나무를 활용한 도심속 치유의 모듈러 주택계획안

이동이 자유롭고 설치와 회수 그리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주거 군 자체가 경량화 모듈화되어야한다.

이에 새로운 건축자재의 재료로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대나무와 기타 합성섬유를 이용한 고강도 Bamboo-slab를 이용하여

주택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고 대나무의 외피 재질의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수려한 외부 파사드를 형성한다.

루버 및 내장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이로운 건축 주거공간을 구현한다.



Sun-Cheon Culture Art Market

순천은 역사의 흔적과 문화적 행사가 가득한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순천 문화 아트 마켓은 기적의 도서관이 위치한 버드내 공원과 연계하여 주변과 호흡한다.
기존의 공원 거리를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어 사람들이 쉽게 건물을 관통하여 지나다니며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접촉이 일어나게 한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으로서 상설예술마켓은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기존에 운영되는 나눔 장터는 아트 마켓 안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참여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위배하지 않으며, 전통 구조를 현대적을 재해석한 배치 제안은 물과 바람 등 자연 요소를 적극 활용하였다. 수공간(BIOTOP)과 바람길 계획은 재활용된 컨테이너의 단점(냉난방)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어 친환경적인 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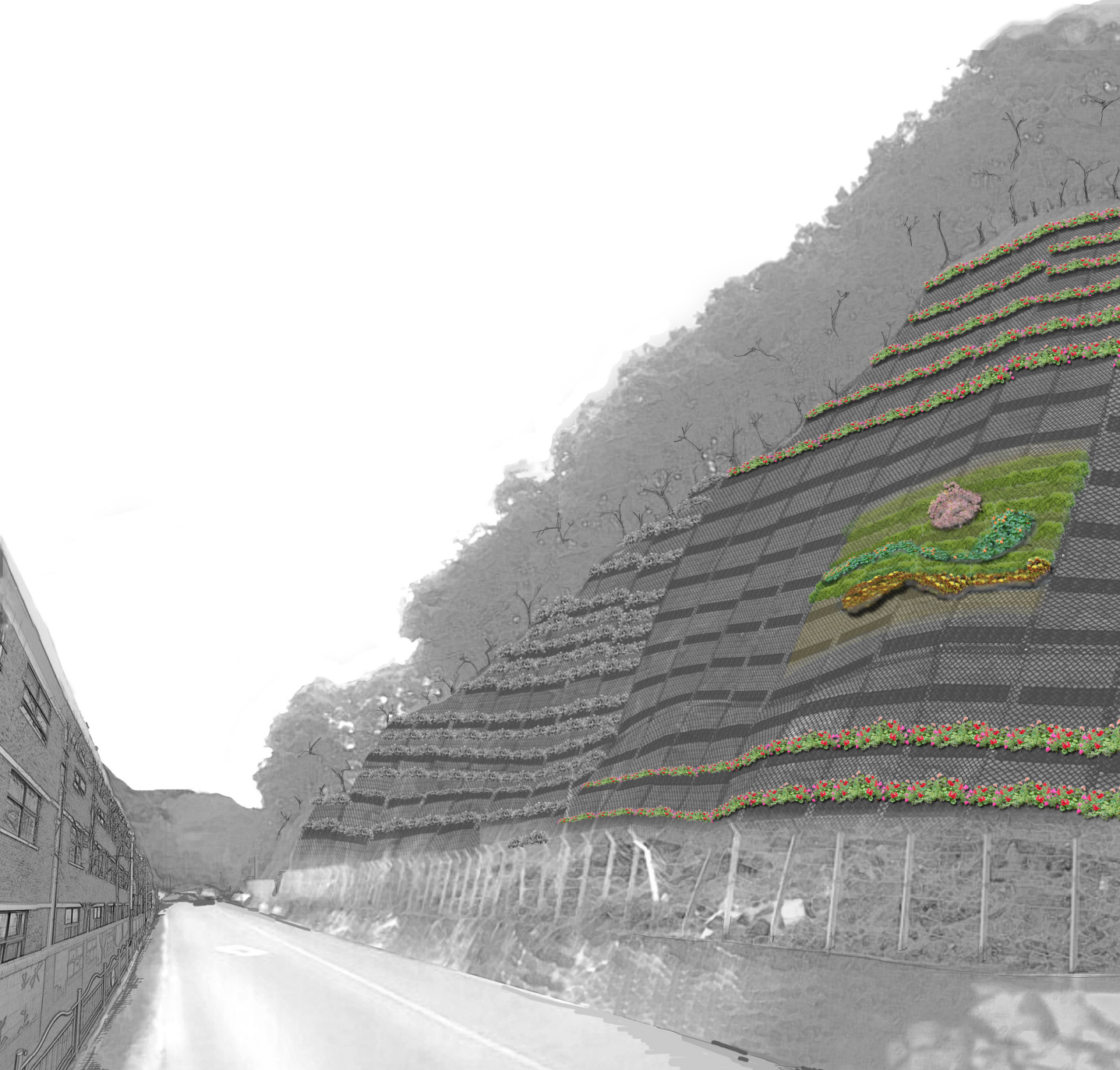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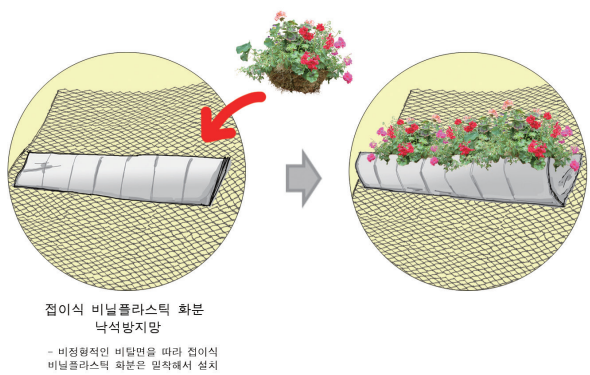
Restore

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하였다.

기본형, 리모델링형, 디자인형 3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기존의 낙석방지망에 비닐플라스틱 화분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펼쳐 경량토를 담고 식재를 심어 비탈면을 녹화시킬 수 있다.

리모델링형은 기존 낙석방지망에 접이식 비닐플라스틱 화분 부분만 설치하여 기존 낙석방지망을 재활용한다. 디자인형은 이미지, 문자 등의 형태로 비닐플라스틱 화분을 설계하여 식재배치로 비탈면을 디자인, 상징성과 같은 의미를 주거나 옥외광고기능을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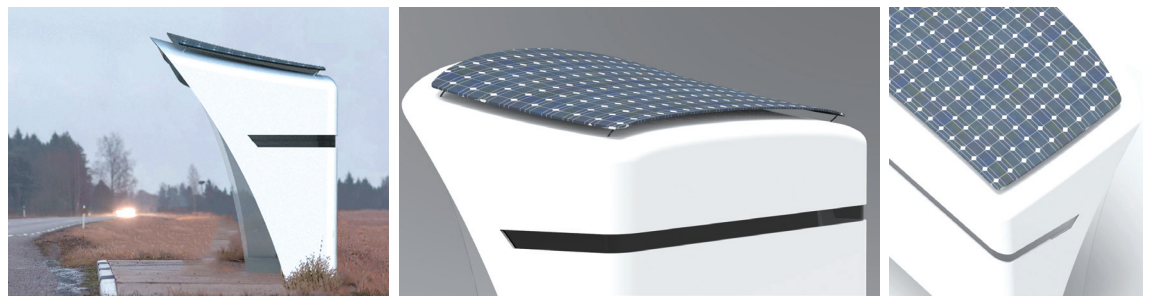


Eco Shelter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버스 정류장

친환경 전기발전 시스템들 중 면적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여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옥수수 전분 성분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전체적인 형상을 디자인하였고 항구도시 목포를 나타내는 배의 머리 부분을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으로 구성, 파도의 유기적인 곡선을 벤치로 표현하여 경제적이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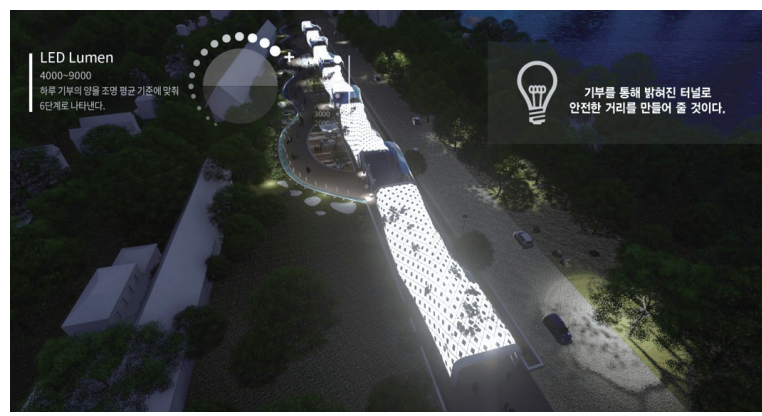
설문조사 시 가장 불편했던 전자 노선 안내 표지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보기 편하고 고장이 나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UX 디자인도 작업하였다.



은상
하지운 \ 유정혜

小鹿島 희망 터널 爲里保民

2016년 소록도 국립병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는다.
고통의 섬 소록도가 희망의 땅으로 불리며 연간 봉사자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록도의 환자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로 아직도 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매일 지나는 통원 길이 차도와 구별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터널을 통해 소록도 환자들에게 통원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에 배치된 화분으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아람유자차

전라남도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로, 티백(tea bag)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유자는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과일이라서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대표 이미지인 유자나무를 수묵화로 직접 그려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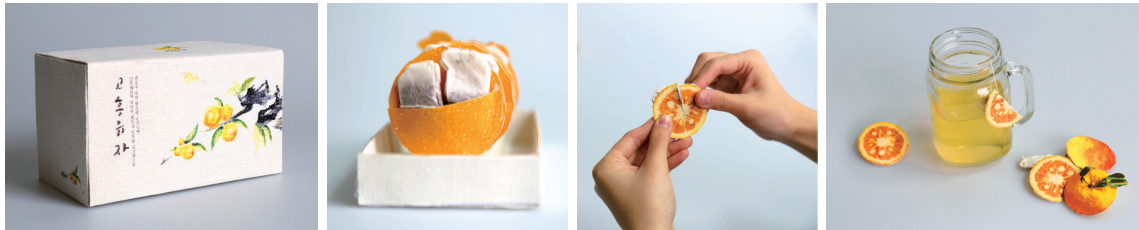
'아람 차'라는 작품명은 '따스로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은 과실'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아람'과 실제 청정 농산물인 고흥의 유자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었다.

패키지에는 친환경성과 심미성을 살리기 위해 패키지에 쓰인 원단 모두를 '룩스 패브릭'을 사용했다. 경제적이며 수묵화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한 곁 패키지과 반대로 안쪽의 티백은 실제 유자를 떠올릴 수 있으며 현대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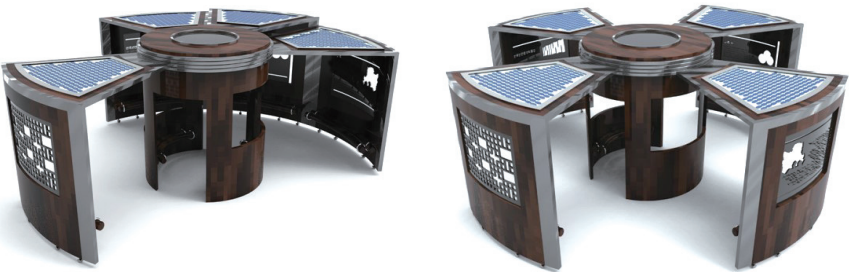
티백 패키지에서 한 개의 티백을 찢으면 반원 모양의 두 개의 티백이 되는데, 실제 상큼한 유자를 연상시키기 위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티백을 태워 마실 때, 컵의 길이와 실의 길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었던 경험 때문에 실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접착시켜 놓았다.



Transform Shelter

관광지를 구경하면 안에서 쉬거나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늘이 없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쉬어야 하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쉼터라는 공간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준다. 여행 중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편히 쉬면서 그 지역과 특산물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관광 효과 또한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친환경적인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된 전기를 통해 어두운 저녁에 불을 밝힐 수 있고 어두운 곳이
 줄어들어 범죄 예방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터널, 새들이 다시 날아들다!

터널은 어둡다, 칙칙하다, 답답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이 대부분이다. 터널의 부득이한 건설에 따른 인공적인 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기 마련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과 자연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

운전자들에게는 무미건조하고 연속적인 인공 구조물 아닌 가치 있는 오브젝트, 볼거리 요소와 시각적, 청각적으로 즐거운 운전에 기여하고 새들에게는 사람들만을 위한 인공적인 소유물이 아닌 자연 속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여 터널로 파괴된 생태계에 새들 및 그 밖의 동식물을 위한 인식처로 복원하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친환경 도로경관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이끌어내어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여 친근함,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신개념의 친환경 터널 경관 연출하고 자연환경을 배려한 최적의 인공적인 시설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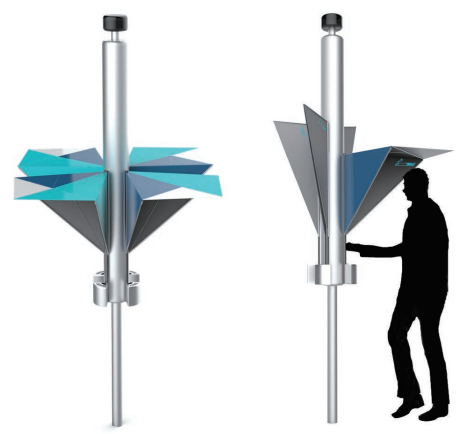


S-pinwheel zone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은 불거지고 흡연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푸른색의 바람개비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정화되는 맑고 시원한 공기의 순환을 표현하고자 디자인하였으며 기존 흡연부스의 찌든 내와 답답함 등 설치되어도 잘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담배연기를 정화해주는 개방형 야외 흡연부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S-pinwheel zone은 터치 시스템으로 쉽게 부스를 접었다 펼 수 있어 설치 장소의 공간 활용을 생각하였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축척한 태양광 에너지를 공기 청정과 야간 조명등으로 활용한다.

부스의 양옆 프레임으로 담배연기가 흡입이 되어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기동 끝 쪽에서 정화되어 나와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줄여주는 시설물을 디자인하였다.



Re-Turn

친환경 음수대 Re-Turn은 기둥 세로 축 기준으로 노즐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노즐을 아래로 향하게 해 물을 받쳐 마시거나 노즐을 위로 향하게 해 손을 쓰지 않고도 성인, 어린이, 애완동물, 식물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서서 차별 없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

수도꼭지가 돌림 형식이 아닌 누름(Push-up) 버튼 형식으로, 물을 잠그지 않고 틀고 가 버리는 물 낭비 문제를 보완하여 버튼이 자동으로 돌아와 물을 잠가 줄 뿐 만 아니라 버튼 형식이라 힘이 약한 어린이들도 손쉽게 물을 틀 수 있다.

하단의 물그릇에 어느 정도의 물이 차오르게 되면 바닥에 있는 홈으로 물이 떨어져 넝쿨(식물)로 흘러 내려가게 해 물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물그릇의 파인 홈과 바닥의 홈의 위치를 같게 해 홈 사이에만 물이 고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음수대에서 흘러 내려온 물을 먹고 자란 넝쿨(식물)은 프레임을 타고 올라와 식물 조경으로도 쓰일 수 있다.



튤립

확장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튤립 꽃이 개화하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어 적용한 디자인으로 쓰레기가 적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수거함이 축소되어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양이 많아질수록 수거함이 확장되는 구조의 분리수거함이다.

도심 가로는 물론 소공원, 산책로 등에 잘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꾸미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서랍형 녹차 패키지 디자인

우리의 전통 보성 녹차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보성 녹차만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단순한 제품을 담는 패키지를 넘어 약세사리나 장신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서랍형 패키지 디자인이다. 재생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구상하였다.



SOLAR BENCH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기계의 특성상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제때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배터리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태양열 충전 의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공원 또는 공공장소에 태양열 충전 의자(solar bench)를 설치하여
 태양열에너지를 통해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다.
 6개의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 모은 에너지를 각각의 의자로 전달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원 같은 장소에 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유기적인 형태의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남 나주 수출용 버섯 패키지

전라남도 나주에서 재배되는 버섯이 수출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버섯의 3가지 종류를 선택해서
수출에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버섯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었다.
크라프트지와 옥수수 성분의
비닐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Famer's Sack

쌀 포대는 무겁고, 자칫하면 찢어지고, 들고 나르는 일이 힘들다.
쌀 포대가 자루 가방(sack)의 형태로 손잡이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마대 원단에 손잡이를 만들고 인쇄해
쌀 포대를 장바구니 가방으로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버리는 디자인이 아닌 매장에서는 구매의 편의를,
집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혹은
장바구니 가방으로 생활 속에 함께하는
디자인을 생각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꽃문살

꽃문살은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불갑사 대웅전의 화려한 문살이다.

불갑사 대웅전 '꽃문살'의 문양으로 전라남도의 문화재하면 빠트릴 수 없는 문화재 중 하나이다.

육각형 안에는 두 살이 만나는 교점에 여섯 잎으로 이루어진

꽃무늬를 올려서 돋보이게 만들었다. 꽃잎은 아래쪽 둥그런 제비모양을 닮았으며,

위쪽은 날카로운 모양으로 이루어져 힘찬 모양으로 꽃의 잎을 대신하고 있다.

꽃모양은 마치 눈송이 모양 같다.

우리선조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지식, 예술성, 생활 등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한국전통문양'을

전라남도 전통 문화재에서 추출해 디자인한 상자에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담았다.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재활용 종이를 사용한 상자를 디자인했다.

종이의 재활용은 상태에 따라 약 3~8회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가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 된다면 자원절약은 물론

지구환경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green tea project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보성 녹차' 패키지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티백 패키지와는 기능면에서 차별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전면부에 뚫어진 구멍으로 티백의 양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을 특화하여

'몸에 좋은 녹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30일 녹차 프로젝트'를

타이틀로 콘셉트를 잡아 티백을 소진할수록 상반부를 올리게 되고

그에 따라 표시된 1~4주일까지 직접적으로 자신이 꾸준히 녹차를 식음했는지 알 수있게 하였다.

전면부는 녹차잎을 현대적으로 패턴화하여 디자인해 눈길을 끌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컬러로 만들어 진열되었을 때의 심미성과 상품이 더욱 눈에 띄도록 하였다.

전면에 뚫려있는 구멍 부분의 투명 시트지를 제외하면

모두 종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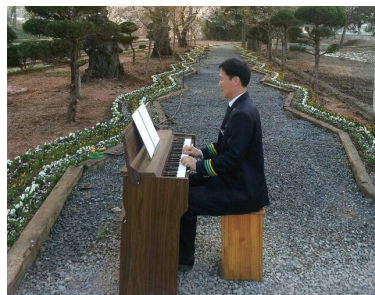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득량역

득량역은 1930년 12월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한 이래 때로는 주민들의 생업수단이 되고, 때로는 사람의 정이 오가는 교통수단이 되는 등 서민의 애환을 싣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성군의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쇠락해 가는 시골마을 및 득량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옛 역사 복원,
꽃밭 정지, 이순신 관련 테마발굴 및 초가집 제작·설치, 레일바이크 제작/설치,
80년대 철도 신호기 및 용품 등 전시, 풍금 및 야간조명 설치 등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득량역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mackii@korail.com



섬진마을

나대지로 방치되어 버려져 있는 공간을 이와 같이 경관광장으로 재탄생시켰으며
광장 내 교목과 관목을 약 5,000주 식재하여 수려한 섬진강변과 어울리는
자연경관 조화를 고려하여 조성하였다.

마을의 전설을 이용한 처녀와 두꺼비 설화의 마지막 장면을 테마로 조형물을 제작하여
광장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섬진마을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며
두꺼비 캐릭터와 사랑과 소망이라는 테마로 포토존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감성적인 공간에서 사진으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한 공간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매화디자인을
반영한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광장 내 조명은 LED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여 사후관리가
편하도록 계획하여 조성하였으며

섬진마을의 주요 생산물로서 제철이 있으며 이를 캐릭터화하여 조형물을 설치함
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마을의 생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하였다.

광양시 도시과
061. 797. 2168 / gusal19@korea.kr



메타세쿼이아길

메타세쿼이아 길은 가로수 생육과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여원을 들여 메타세쿼이아 길 구간 (2.1km)에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생태 흙길을 조성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자연과 호흡하는 흙길로 복원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생태 숲길이 형성돼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담양군 도시과
061. 380. 3102 / pd0213@korea.kr



담빛예술창고

국가 수매 제도의 변경으로 그동안 정부양곡을 보관해 왔던
대형 창고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미관상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실정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창작공간 및 문화시설로 재창조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발표의 기회를, 지역민에게는 문화 예술 향유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담양군 문화체육과
061. 380. 2802 / kkamcic@korea.kr



고바우공원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고바우공원이 신(新)관광 명소로 뜨고 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배려가 깊이 고려된 품격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인
전망시설은 강진군이 2011년부터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건물 전면부에는 대부분 유리로 마감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베이지 빛이 감도는 온화한 대리석으로 마감했다.
지붕은 평지붕에 데크로 시공해 고바우전망대를 찾은 사람들에게
탁 트인 시원함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 지역개발과
061. 430. 3363 / ps.aaa@korea.kr



녹색나눔 숲

장성 녹색나눔숲(장성공원)은 도심속 주거공간을 재개발하여 조성된 숲으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이다. 2015. 10월에 제1회 장성 가을노란꽃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으로 인근 지역의 유치원, 초·중등 학교에서 숲체험 교육장소로 이용되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2016년 숲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공원관리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장성군 산림편백과
061. 390. 7421 / cmjpsh@korea.kr



발행처 전라남도청 문화산업디자인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TEL. 061-286-5332

제 작 디자인숲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38(2층)
TEL. 061-374-0368

발행일 2016. 12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전체 또는 부분이라도 복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6 Jeollanam-do

문 의 전라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
TEL. 061-286-5332